

심판 받은 심판자

Judged Judge
마가복음 15장 16-37절

-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뱉으며 끓어 절하더라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는 자여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
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
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
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

1. 34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기
도문의 첫문장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21도 찾아봅시다. 평소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지 묵상해봅시다.

2.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봅시다.

3.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신30:15, 요5:29 등)

4.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요13:1, 롬8:38-39)

5. 두 가지 성품이 한 번에 잘 드러난 성경구절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
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
다.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 사망의 형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룬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들은 말씀과
또한 설교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6.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진심’ 이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감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7.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으니, 우리
가 치러야 할 ‘은혜의 대가’는 무엇일까요?